

정동영 통일부 장관, 몽골 방문, 울란바타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파

- 몽골 대통령 예방, 외교부 장관 면담 등 통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협조 당부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문 중인 몽골에서 어제 「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」에 참석하여 특별연설을 했다.
 - 정 장관은 연설에서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길이자, 「한반도 평화공존 정책」의 핵심비전으로 “차이를 포용하고, 적대를 끝내고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평화 정체성(Peace Identity)”을 제시하고
 - ‘평화정체성’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“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·북·미·중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대화를 시작하여, 일본·러시아·몽골 까지 대화의 틀을 넓혀 나갈 것”을 제안했다.
 - 또한, “광역두만개발계획(GTI)의 회원국들이 GTI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, 장기적으로 ‘북극항로 협력’과 ‘서울-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사업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”고 하면서
 - 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GTI 정식 회원으로 재가입할 것을 촉구”했다.
- 정 장관은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난 계기에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, “대화는 선, 대결은 악”이라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- 정 장관은 연설 후 △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예방 △바트몽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면담 △한몽 친선협회 소속 몽골 의회 의원 면담 △前 주북 몽골 대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,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.
 -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해 11번째인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한 첫 해외 장관급 인사로, 특별연설을 통해 울란바타르 위상을 높여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.
 - 또한, 한몽 우호협력관계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한국 정부의 「한반도 평화공존 정책」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.

- 바트몽흐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은 몽골의 비핵무기지대, ‘제3의 이웃’ 등의 정책과 우리의 「한반도 평화공존 정책」 간에 많은 접점이 있다고 하면서, 한반도·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정 장관은 후렐수흐 대통령 예방과 바트체첵 장관을 면담한 계기에 “남북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몽골은 한반도·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고, 몽골이 울란바타르 대화 등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앞으로 형제애를 바탕으로 남·북·몽 3자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”고 했다.
- 또한, 양측은 상호 방문 편의 증진, 희토류 탐사·개발,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, 몽골 여성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 등 양국 간 현안에서도 의견을 교환했다.
 -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 가혹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재발방지를 지시한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한 몽골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면서 감사를 표했다.
 - 후렐수흐 대통령,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, 한몽친선협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몽측은 해외체류 몽골 국민의 1/3인 5만 5천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, 한국 국민들이 이들을 형제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줄 것을 공통적으로 요청했다.
 - 특히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은 무비자로 이뤄지는 반면 몽골 국민의 한국 방문은 엄격한 비자 절차가 적용되는데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.

□ 정부는 이번 정 장관의 몽골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몽골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.

붙임 : 관련 사진 (별도 첨부)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2100-2370)
		담당자	주무관	박윤범 (02-2100-2328)

